Special Feature

코로나19 경제에서 이민자가 미국 노동시장에서 겪는 불이익 : 지리 및 산업의 역할

Randy Capps (미국 이주정책연구소 미국 제도 연구실장)
Jeanne Batalova (미국 이주정책연구소 선임정책분석가)
Julia Gelatt (미국 이주정책연구소 선임정책분석가)

■ 머리말

2020년 3월에 코로나19 대유행이 선언된 지 1년 반이 지난 현재, 사업체에 대한 규제가 전국적으로 해제되면서 미국 경제는 상당히 회복되었다. 대유행이 정점에 달하면서 단행되었던 이민에 대한 규제도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해제되었다. 2020년 말에 백신이 도입되면서 대유행이 곧 통제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2021년 9월 중순 현재 미국 전체 인구의 54%만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에서[1] 전염성이 매우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 지역사회 곳곳에서 계속 출현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향후 경로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경제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전반적인 경제지표는 비록 느린 속도일지라도 대부분 개선되고 있다. 미국의 전

* 이 글은 이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 이하 MPI)의 Randy Capps, Jeanne Batalova, Julia Gelatt가 공동 집필한 "Immigrants' U.S. Labor Market Disadvantage in the COVID-19 Economy : The Role of Geography and Industries of Employment"(Washington, DC : Migration Policy Institute, 2021)를 간추린 글이다. 원문은 https://www.migrationpolicy.org/research/immigrants-covid19-geography-industries에 게재되어 있다.

Original articles Copyright © 2021 Migration Policy Institute.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 2022 Korea Labor Institute.
Translated and reproduced by permission.

1)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2021), "COVID-19 Vaccinations in the United States", https://www.cdc.gov/ (검색일 : 2021.9.14).

체 실업률은 2020년 4월 최고치인 14.4%에서 2021년 7월에는 5.7%로 감소했지만, 영업 중단이 시작되기 직전인 2020년 2월에 관측된 3.8%라는 대유행 이전의 실업률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2] 110만 개의 비농업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되면서 2021년 7월 현재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대유행 이전과 비교하면 취업자 수는 여전히 5백만 명 이상 줄어든 상태이다.[3]

코로나19 대유행 초반에는 이민자의 실업률이 미국 출생 노동자에 비해 더 높았다. 2020년 4월의 경우 미국 출생 노동자의 실업률은 14.0%였으나 이민자는 최고치인 16.4%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이민자의 경우 고용회복 속도도 더 빨랐으며, 2021년 7월경에는 오히려 미국 출생 노동자의 실업률인 5.7%보다 0.3%p 낮은 5.4%의 실업률을 기록하였다. 특히 남성 이민자의 실업률이 크게 개선되었는데, 미국 출생 남성의 실업률인 5.6%보다 낮은 5.2%를 기록하였다. 7월에는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여성 이민자의 실업률이 5.6%로 감소하여 미국 출생 여성의 실업률인 5.8%보다 낮아졌다(그림 1 참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관찰된 패턴은 2008년 대침체가 시작된 이후와 유사한데, 당시 이민자의 실업률은 빠르게 증가하여 정점에 이른 후 2년 내에 미국 출생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감소했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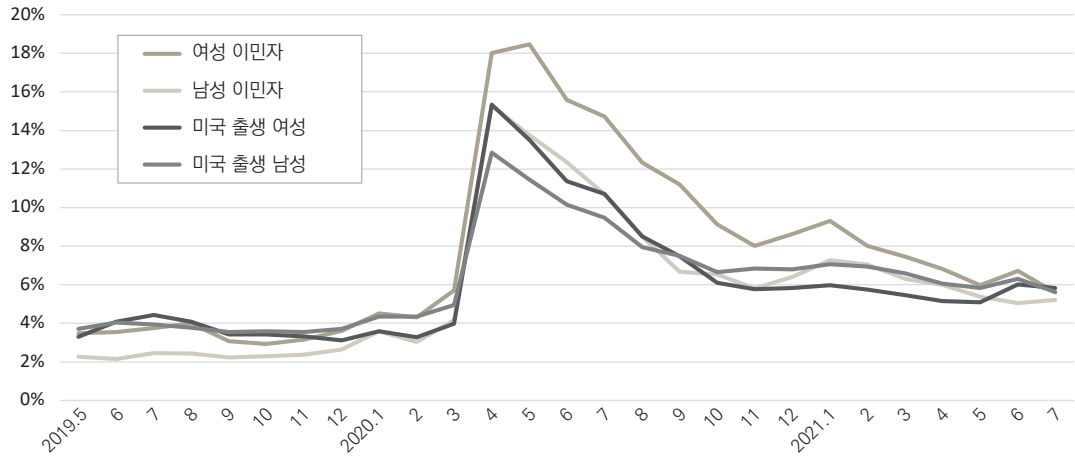
2008~2009년의 경기침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대유행도 초기에는 이민의 감소를 초래하였다. 대유행 시작 직후에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합법적 이민의 유입이 크게 둔화되었다. 미국 영사관은 한동안 비자 절차를 중단했다가 서서히 재개하였고, 미국 이민국의 업무도 더디게 진행되었으며, 특정 이민자 집단의 입국은 전면 금지되었다. 2019년과 2020년 회계연도

2) 미국 인구조사국 자료를 MPI에서 분석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MPI 이주데이터 허브(Migration Data Hub)의 자료 "U.S. Unemployment Trends by Nativity, Gender, Industry, & More, Before and during Pandemic" 참조 (검색일 : 2021.8.24). 이 글과 MPI 이주데이터 허브에서 인용하고 있는 실업률은 계절조정 실업률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2021년 7월의 계절조정 실업률은 5.4%였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의 다음 자료 참조.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2021), "Employment Situation – July 2021", News Release, August 6, https://www.bls.gov/.

3)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2021), "Employment Situation – August 2021", News Release, September 3, https://www.bls.gov/.

4) Papademetriou, D. G. and A. Terrazas(2021), "Vulnerability, Resilience, and Adaptation : Immigrants over the US Economic Crisis and Recovery", Papademetriou, D. G., M. Sumption, and A. Terrazas(eds.), *Migration and the Great Recession : The Transatlantic Experience*, p.43.

[그림 1] 미국 민간 노동력에서 성인(16세 이상)의 미국 출생 여부 및 성별 실업률(2019년 5월~2021년 7월)



주 : 계절조정되지 않은 실업률임.

자료 :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의 2019년, 2020년 및 2021년 월별 상시인구조사(CPS) 자료를 이주정책연구소가 분석한 내용임.

사이에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새로운 합법적 영주권자에게 발급된 이민 비자 건수가 48% 감소하였고, 임시 비자 발급 건수도 54% 감소하였다.[5] 미국 영사관에서는 비자 처리 업무가 여전히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합법적 이민의 유입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이전의 경기침체기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미국 노동시장의 매력도가 약해지면서 허가받지 않은 이주도 상당히 감소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둔화는 2020년 회계연도에 더 심해졌다. 해당연도에 관측된 (종종 무단입국자의 규모를 가늠하기 위한 대리변수로 사용되는) 미국 국경순찰대의 적발 건수는 2019년 회계연도에 관측된 수치의 절반 미만으로 줄어들었지만, 2021년 회계연도에는 반등하여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6]

코로나19 대유행은 미국에서 인구증가의 둔화라는 장기적 추세도 가속화한 것으로 보인

5) 미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자료 "Report of the Visa Office 2020"의 〈표 1〉(Immigrant and Nonimmigrant Visas Issued at Foreign Service Posts : Fiscal Years 2016-2020) 참조.

6)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2021), "Southwest Land Border Encounters", updated September 13, https://www.cbp.gov/.

다. 대유행 이전에도 미국의 출생률은 여성 1인당 2.1명인 인구대체 수준 미만이었는데, 이는 이민이 없다면 향후 미국의 전체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수십 년과 비교할 경우 2010년과 2020년 사이에도 이민의 유입은 둔화되었다. 그 결과 2020년 인구조사에서는 10년 단위의 미국 총인구 증가율이 1930년대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7]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출생률은 대유행 기간에 더욱 감소했으며 2020년에는 전년대비 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8] 인구 증가율의 둔화는 인구 고령화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고령의 부양가족을 부양할 노동자 수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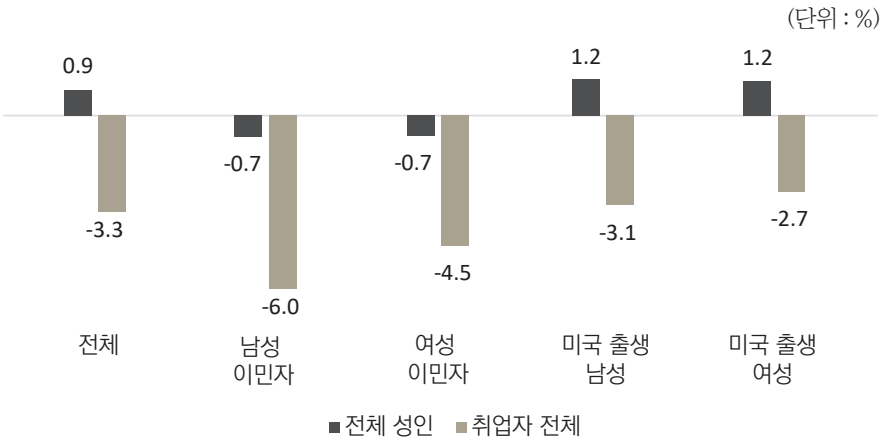
이 글에서는 대유행 기간의 실직, 이후 미국 노동시장의 부분적 반등, 그리고 장기적인 노동력 추세라는 좀 더 넓은 맥락에서 남성 및 여성 이민자의 고용패턴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 글은 미국의 지리적 지역과 주요 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고용패턴의 주요 차이점에 중점을 두면서, 이민자의 고용이 회복된 정도를 고찰한다. 계절적 고용패턴을 감안하기 위해, 2021년 중반 3개월의 기간(5~7월)에 대한 미국인구조사국의 상시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 이하 CPS) 자료를 대유행이 시작된 직후의 3개월이 아닌, 2019년 동기간의 자료와 비교한다.

■ 노동자 수 및 고용 수준의 변화

2019년 5~7월과 2021년 5~7월 사이에 미국의 취업자 수는 크게 감소했지만, 미국 출생자보다 이민자 사이에서 그 감소폭이 더 컸다. 전체 취업인구는 520만 명 감소했으며 이민자는 이 감소분의 28%(150만 명)를 차지했는데,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 전체 노동력에서 이민자가 차지한 비중이 17%였던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높은 비율이다. 이 기간에 노동이민자 수의 감소율은 미국 출생 노동자 수의 감소율보다 컸으며, 특히 남성의 경우 감소율이

7) Chishti, M. and R. Capps(2021), "Slowing U.S. Population Growth Could Prompt New Pressure for Immigration Reform", *Migration Information Source,* https://www.migrationpolicy.org/.
8) Tavernise, S.(2021) "The U.S. Birthrate Has Dropped Again. The Pandemic May be Accelerating the Decline", *New York Times*, May 5, https://www.nytimes.com/.

[그림 2] 미국의 전체 민간인 성인 및 취업자(16세 이상) 수의 미국 출생 여부 및 성별 비율 변화(2019년 5~7월부터 2021년 5~7월까지)



자료 : 미국 인구조사국의 2019년 5~7월과 2021년 5~7월의 CPS 자료를 MPI가 분석한 것이며, 해당 3개월 기간에 대한 추정치를 생성하기 위해 월별 수치를 평균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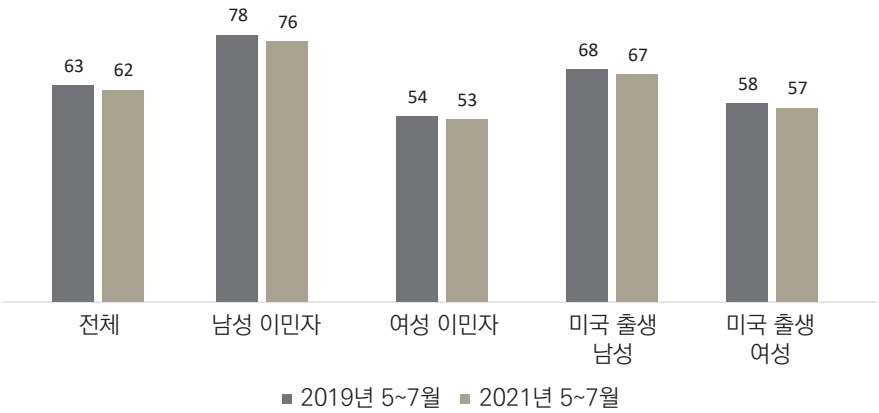
두 배가량 컸다(그림 2 참조).

이민노동자 수의 감소율이 평균보다 큰 이유는 미국 내 전체 생산 연령대 이민자(16세 이상) 수가 감소한 것에 부분적으로 기인한다. 2021년 중반 미국 내 생산 연령대 이민자 수는 2019년 중반보다 31만 3천 명 줄어든 반면, 동기간에 미국 출생 생산가능인구는 260만 명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이민자 인구의 규모가 감소한 것은 대유행 기간에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이민이 감소하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 기간에 해외로의 이민율이 이전에 비해 높았던 것이 반영되었을 수도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향후 경로와 그에 대응하는 정책적 선택이 모두 불확실하기 때문에 생산 연령대 성인의 이민이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지 또는 그 시기가 언제일지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이 글에서 분석한 CPS 자료는 이러한 감소를 과장했을 수도 있는데, CPS의 표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을 뿐만 아니라 특정 이민자 인구를 과소집계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전 몇 년 동안 CPS는 미국 인구조사국의 연간 미국지역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 이하 ACS)보다 외국 출생 인구에 대해 전반적으로 더 낮은 추정치와 더 큰 변동폭을 보여준 경우가 적지 않았다. ACS는 CPS보다 표본의 규모가 훨씬 더 크고 적용범위도 더 크지

[그림 3] 미국의 민간인 성인(16세 이상)의 미국 출생 여부 및 성별 경제활동참가율(2019년 5~7월 및 2021년 5~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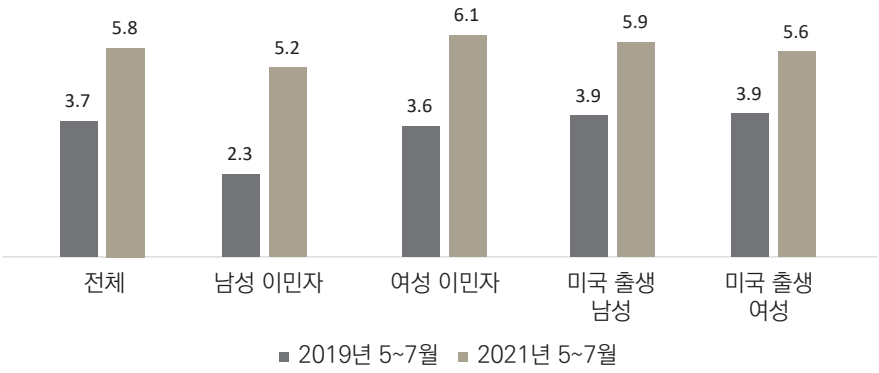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미국 인구조사국의 2019년 5~7월과 2021년 5~7월의 CPS 자료를 MPI가 분석한 것이며, 해당 3개월 기간에 대한 추정치를 생성하기 위해 월별 수치를 평균하였음.

[그림 4] 미국의 민간 노동력 중 성인(16세 이상)의 미국 출생 여부 및 성별 실업률(2019년 5~7월 및 2021년 5~7월)

(단위 : %)



자료 : 미국 인구조사국의 2019년 5~7월과 2021년 5~7월의 CPS 자료를 MPI가 분석한 것이며, 해당 3개월 기간에 대한 추정치를 생성하기 위해 월별 수치를 평균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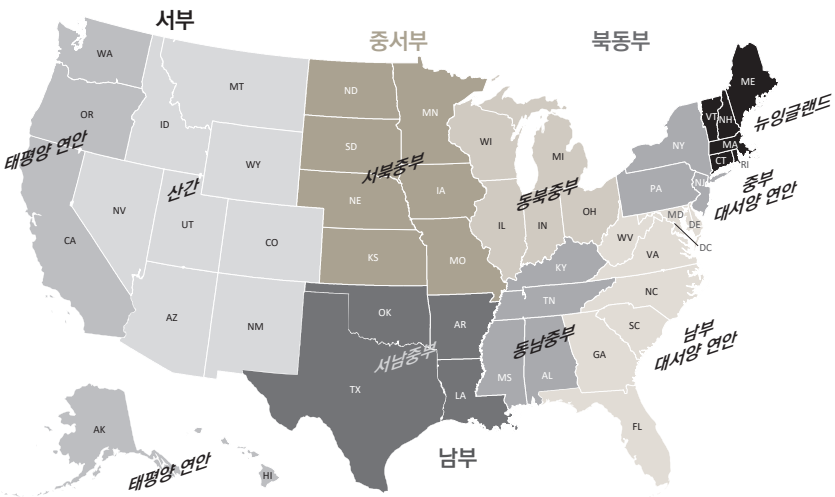
만, 이러한 분석이 진행될 당시 ACS의 2020년 자료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취업 이민자 수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감소한 것은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더 낮았기 때문은 아니었다. 2019년 5~7월과 2021년 5~7월 사이에 이민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미국 출생 성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한 양과 거의 동일한 정도로 감소했다(그림 3 참조). 하지만 2년간의 실업률은 이민노동자가 미국 출생 노동자에 비해 더 급격하게 증가했다(그림 4 참조).

■ 미국의 지역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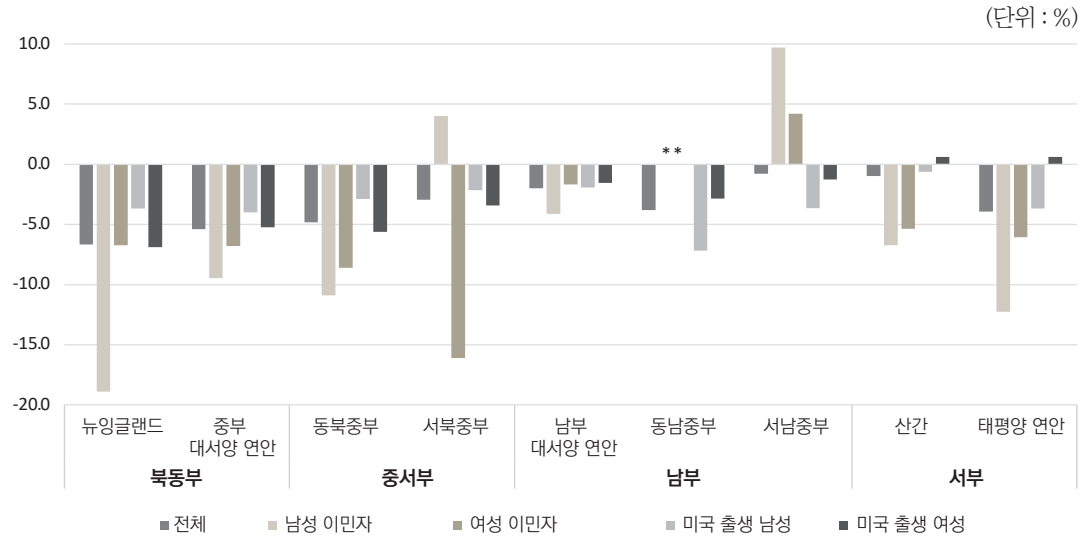
2019년 중반과 2021년 중반 사이 이민노동자 수의 변화는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고르지 않았다.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북동부와 서부이며, 남부와 중서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민노동자 수가 증가하기도 하였다(그림 6 참조). 특히 급격한 감소가 나타난 곳은 뉴잉글랜드, 중부 대서양 연안, 동북중부 및 태평양 연안 하위지역이었으며, 여기에는 미국의 3대 대도시권인 뉴욕, L.A. 및 시카고가 모두 포함되었다.

[그림 5] 미국 인구조사국의 지역 및 하위지역 구분



자료 : U.S. Census Bureau, “Census Regions and Divisions of the United States”, https://www2.census.gov/ (검색일 : 2021.9.14).

[그림 6] 민간인 취업자(16세 이상) 수의 미국 출생 여부, 성별 및 미국 인구조사 하위지역별 비율 변화(2019년 5~7월부터 2021년 5~7월까지)



주 : 동남중부 하위지역(인구조사국에서는 하위지역을 의미하는 용어로 “division”을 사용함)은 정확한 추정치를 산출하기에는 남성 이민자와 여성 이민자의 표본 크기가 충분하지 않음. 그러나 자료에 의하면 이 지역에서 남성 및 여성 취업 이민자 수는 확실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자료 : 미국 인구조사국의 2019년 5~7월과 2021년 5~7월의 CPS 자료를 MPI가 분석한 것이며, 해당 3개월 기간에 대한 추정치를 생성하기 위해 월별 수치를 평균하였음.

■ 주요 경제 부문별 동향

고용의 변화도 주요 산업군 전반에 걸쳐 고르지 않았다. 2019년 5~7월과 2021년 5~7월 사이에, 남성 취업 이민자 수는 도매업과 공공행정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표 1 참조). 단, 공공행정의 전체 취업자에서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적 작았다(그림 8 참조). 남성 취업 이민자의 고용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난 산업은 여가/숙박업, 금융활동, 소매업, 개인/기타 서비스이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미국 출생 남성의 고용은 남성 이민자의 고용보다 백분율 측면에서 덜 감소하였고, 심지어 일부 산업에서는 증가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코로나19 대유행과 뒤이은 경기침체는 경제 전반에 걸쳐 미국 출생 남성보다는 남성 이민자의

<표 1> 미국 노동자(16세 이상) 수의 주요 산업별, 미국 출생 여부 및 성별 비율 변화(2019년 5~7월부터 2021년 5~7월까지)

(단위 : %)

	전체	남성 이민자	여성 이민자	미국 출생 남성	미국 출생 여성
전 산업	**-3.3**	**-6.0**	**-4.5**	**-3.1**	**-2.7**
여가/숙박업	-14.4	-16.7	-28.3	-10.8	-13.9
제조업	-8.6	-1.3	-11.4	-9.3	-9.7
개인/기타 서비스	-4.7	-8.0	-18.4	-1.2	-3.4
농업	-4.7	-7.8	*	-9.5	15.5
교육/사회지원서비스	-3.5	-1.2	-10.4	-1.2	-3.5
전문/사업서비스	-3.1	-2.8	12.9	-4.8	-4.0
보건서비스	-1.4	-3.6	-1.2	3.7	-2.7
소매업	-0.7	-13.6	-10.9	-1.0	4.0
건설업	-0.6	-2.4	*	-2.0	4.8
금융활동	-0.1	-15.2	9.6	1.2	0.0
공공행정	2.6	1.3	20.0	-0.2	4.3
운송/공공시설	3.1	-6.9	14.4	2.9	9.6
도매업	3.2	2.4	*	0.6	5.1

주 : 해당 산업은 여성 이민자의 표본 크기가 충분치 않아 정확한 수치를 산정할 수 없었음.

자료 : 미국 인구조사국의 2019년 5~7월과 2021년 5~7월의 CPS 자료를 MPI가 분석한 것이며, 해당 3개월 기간에 대한 추정치를 생성하기 위해 월별 수치를 평균하였음.

고용에 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2021년 5~7월에 남성 이민자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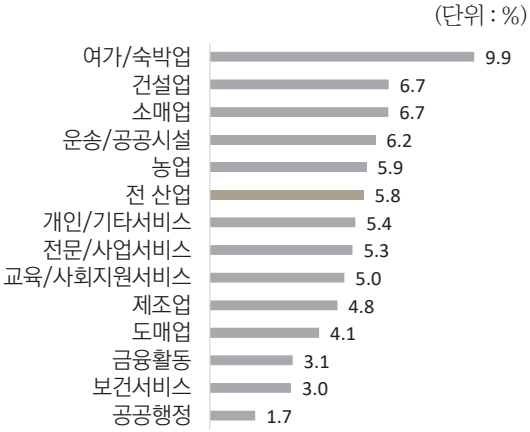
여성 이민자의 고용은 더욱 고르지 않은 패턴을 보였는데, 몇몇 산업에 고용된 여성 이민자 수는 다른 3개 집단보다 더 급격한 변동을 보였다. 단, 분석 대상인 월별 CPS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표본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이 이러한 변동의 부분적인 이유가 될 수는 있다. 여하튼 전반적으로나 많은 산업 부문에서 여성 이민자의 고용이 미국 출생 여성의 고용보다 더 크게 감소했다. 여성 이민자의 고용이 가장 크게 감소하면서 이들의 고용 감소폭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도 가장 컸던 산업은 여가/숙박업 및 개인/기타 서비스였다. 이는 대면접촉이 필요하며 따라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된 공중보건 조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일자리가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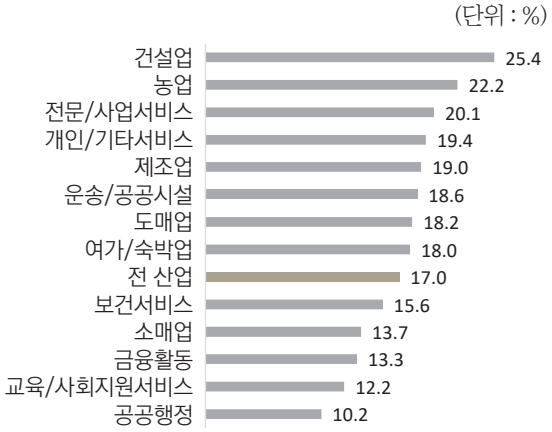
2021년 5~7월에 남성 이민노동자의 고용이 감소한 3개 산업인 여가/숙박업, 건설업 및 소매업은 전체 노동자의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산업이기도 하다(그림 7 참조). 여성 이민노동자수도 이 중 2개 산업인 여가/숙박업과 소매업에서 크게 감소했다. 연구대상 기간 동안 여가/숙박업에서는 미국 출생 노동자 수도 크게 감소했지만, 건설업과 소매업에서는 미국 출생 노동자의 총고용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표 1 참조). 남성 이민자는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한 3개의 산업 중 2개인 보건서비스와 금융활동에서도 고용이 감소하였다. 반면 미국 출생 남성은 이 두 산업 모두에서 고용이 증가하였고, 여성 이민자도 금융활동에서 고용이 증가하였다.

실업률이 높은 산업 중 일부에서는 이민자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났고 또 다른 일부에서는 그 비율이 지나치게 낮게 나타났다(그림 7 및 8 참조). 건설업은 2021년 5~7월에 전 산업 중 실업률이 두 번째로 높은 산업(6.7%)이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 출생 노동자의 비중도 가장 높은 산업(25%)이었다. 하지만 미국의 전체 노동력에서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

[그림 7] 미국의 민간 노동력 내 전체 성인(16세 이상)의 주요 산업별 실업률[9](2021년 5~7월)



[그림 8] 취업자(16세 이상) 중 외국 출생자의 주요 산업별 비중(2021년 5~7월)



자료 : 미국 인구조사국의 2019년 5~7월과 2021년 5~7월의 CPS 자료를 MPI가 분석한 것이며, 해당 3개월 기간에 대한 추정치를 생성하기 위해 월별 수치를 평균하였음.

9) 편집자 주 : 산업별 실업률은 해당 산업의 현재 취업자 수와 가장 최근 취업경험이 해당 산업이라고 응답한 실업자 수를 이용하여 구한 것임.

해 소매업에서는 이민자의 비율이 지나치게 낮게 나타났는데도, 소매업은 건설업과 비슷한 수준의 실업률(6.7%)을 기록하였다. 반면 여가/숙박업의 이민자 비중은 전 산업에서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조금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가/숙박업은 가장 높은 실업률(9.9%)을 기록하였다.

다른 한편, 실업률이 가장 낮은 산업에서는 이민자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낮게 나타났다. 2021년 5~7월에 실업률이 가장 낮았던 5개 산업(공공행정, 보건서비스, 금융활동, 도매업, 제조업) 중 앞의 3개 산업에서는, 이민자의 비율이 미국의 전체 노동력 중 이민자의 총 비중에 비하면 지나치게 낮게 나타났지만, 도매업과 제조업에서는 이민자의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민노동자 수의 감소는 이들에게는 미국 노동시장의 핵심 분야였던 일부 주요 산업인 여가/숙박업, 건설업, 소매업에서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고 있는 현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여가/숙박업과 소매업의 고용이 반등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영업 중단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사무직 노동자가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은 중심 상업지구에서의 영업 중단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컨대 뉴욕과 필라델피아가 속해 있는 중부 대서양 연안 하위지역의 경우, 2021년 5~7월의 실업률은 여가/숙박업이 15.2%, 소매업은 9.9%로 여전히 비교적 높았다. L.A.가 위치한 태평양 연안 하위지역에서는 이 두 산업의 실업률이 각각 11.9%와 8.1%였다. (마찬가지로 동부와 서부 연안 지역에서 비교적 실업률이 높은) 건설업은 목재, 철강, 전기부품 등 주요 자재의 부족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 그러한 공급제약이 해결될 수 있다면, 건설업의 고용성장 전망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가/숙박업 및 소매업의 일자리는 많은 지역의 경우, 사무직 노동자의 도시로의 복귀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현재나 향후에 어떠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될 수 있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다.

■ 맺음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경기침체가 가장 심각했던 시기에 이민자는 미국 출생 노동자보다 훨씬 더 높은 실업률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 선언된 지 1년 반만에

이민자의 실업률은 미국 출생 노동자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16개월 동안 미국 출생 여성은 물론이고 미국 출생 남성과 외국 출생 남성의 실업률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던 여성 이민자의 실업률은 2021년 7월 미국 출생 여성보다 낮은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실업률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전체 노동력 중 이민노동자 수가 감소하였다.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이민(합법적 이민과 무단 월경을 모두 포함)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과 비교할 경우 2020년에 급격히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생산 연령대 이민자 인구의 규모가 줄었고, 이민자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기 때문에 이민노동자 수는 더욱 줄었다. 이는 미국의 노동력 증가에 상당한 부분을 기여해 온 이민노동자의 장기적 추세가 역전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민자는 여전히 실업률이 높은 산업과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경제회복의 이점을 누리기에 특별히 유리한 위치에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일부 조정의 기미도 나타난다. 이민자 수는 뉴잉글랜드 및 태평양 연안과 같이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 가장 크게 감소한 반면, 중남부 및 동남중부 하위지역과 같이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이민자가 회복 속도가 더딘 지역에서 일자리의 기회가 더 많은 곳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추세가 향후 어떠한 결과로 나타날지는 코로나19 대유행의 경로만큼이나 불확실하다. 새로운 바이러스 변이가 확산되는 가운데 향후 대규모 감염이 발생한다면 미국 출생자와 이민자의 실업률이 모두 다시 증가할 수 있고 노동력 규모도 축소될 수 있다. 이주도 향후 몇 년 안에 강하게 반등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남서부 국경지대에서 무단입국자가 증가하고 있을 뿐이며, 비자업무의 적체 및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중보건 규제로 인해 합법적 이민의 유입은 여전히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

또한 특정 산업에서의 일자리 소멸이 한시적인지 또는 영구적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경기 침체 이전에도 여러 산업부문 중 특히 식품조리, 농업 및 제조업의 일자리는 자동화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었다.[10] 대유행 기간에 대면 접촉을 피해야 할 필요성으로 일부 산업에서

10) Gelatt, J., J. Batalova, and R. Capps(2020), "Navigating the Future of Work : The Role of Immigrant-origin Workers in the Changing U.S. Economy", https://www.migrationpolicy.org/.

는 노동자를 기술로 대체하는 속도가 가속화되었을 수도 있다. 여가/숙박업 및 소매업과 같은 산업은 소비자 행동의 변화로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예컨대 좀 더 많은 사람이 재택근무를 계속하면서 중심 상업지구보다 자택 인근의 업소를 애용하는 경우가 이러한 소비자 행동의 변화에 해당하다.

이민노동자가 변화하는 노동수요에 적응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기침체나 자동화에 좀 더 저항력을 가지는 고숙련 일자리로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교육과 직업훈련에 투자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이와 동시에 국제적으로 취득한 학위나 숙련을 자격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개선한다면, 수백만 명의 대졸 이민자의 숙련 저활용 문제도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지역사회도 이민자의 인적자원으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11)]

일단 미국이 대유행의 경제적 영향에서 벗어나려면,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의 노동력 증가를 위해 이민이 지속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광범위한 인구통계학적 추세를 통해 알 수 있다. 전체 생산 연령대 이민자 수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보다 적고 낮은 출생률로 인해 미국의 인구 증가율이 계속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출생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변화하는 노동시장 수요에 대응하여 이민자의 거주지역과 그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일부 변동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러한 경제적 및 인구통계학적 추세가 반영되도록 미국의 합법적 이민제도를 개혁한다면, 향후 탄탄한 경제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KLI

11) Batalova, J. and M. Fix(2021), "Leaving Money on the Table : The Persistence of Brain Waste among College-educated Immigrants", https://www.migrationpolicy.org/.